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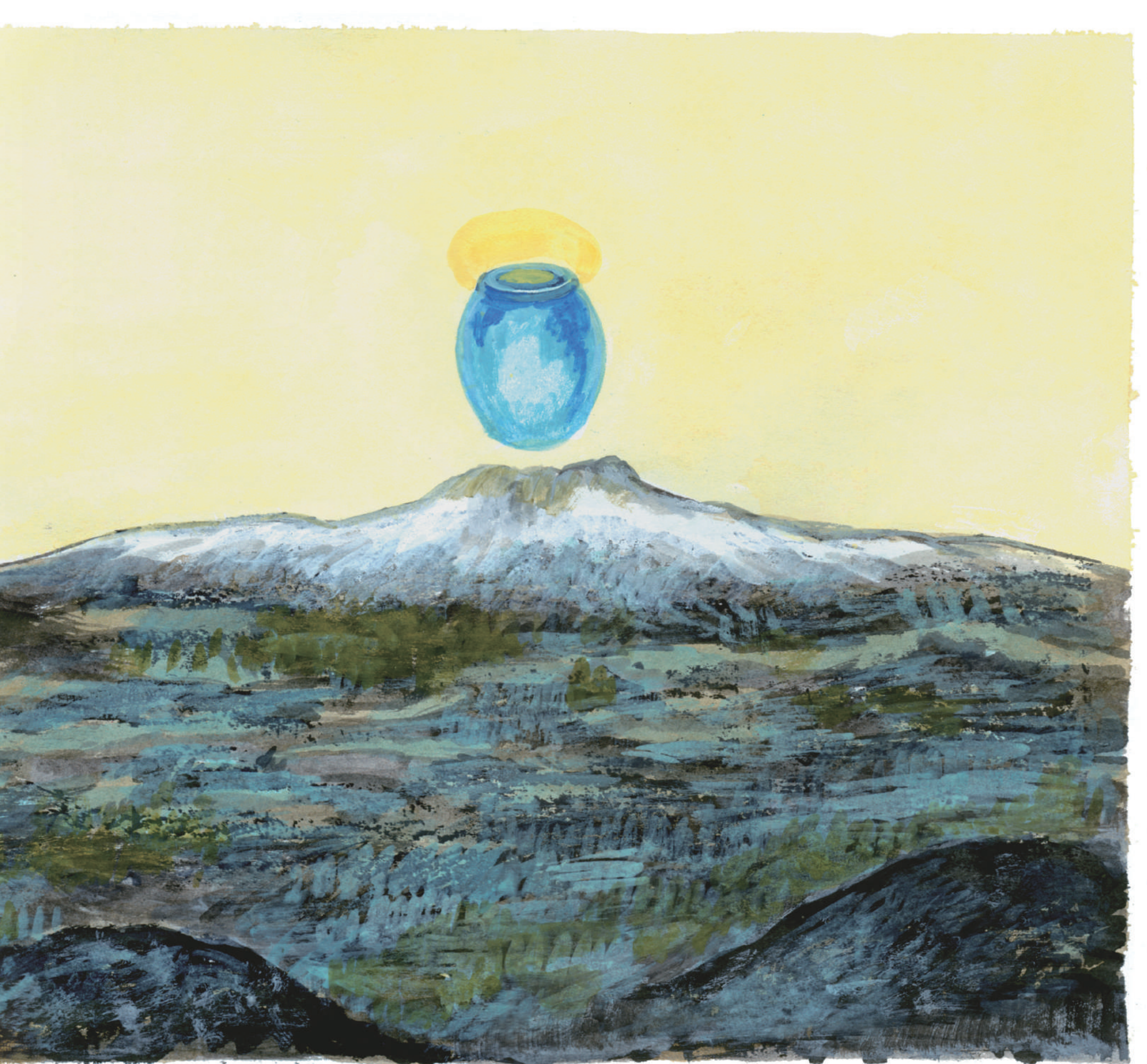


만덕과

글·그림 홍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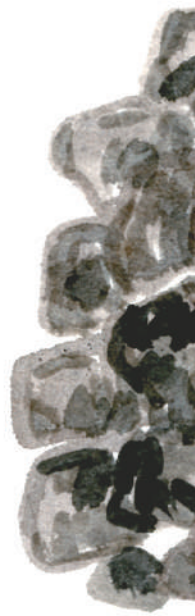
푸른 향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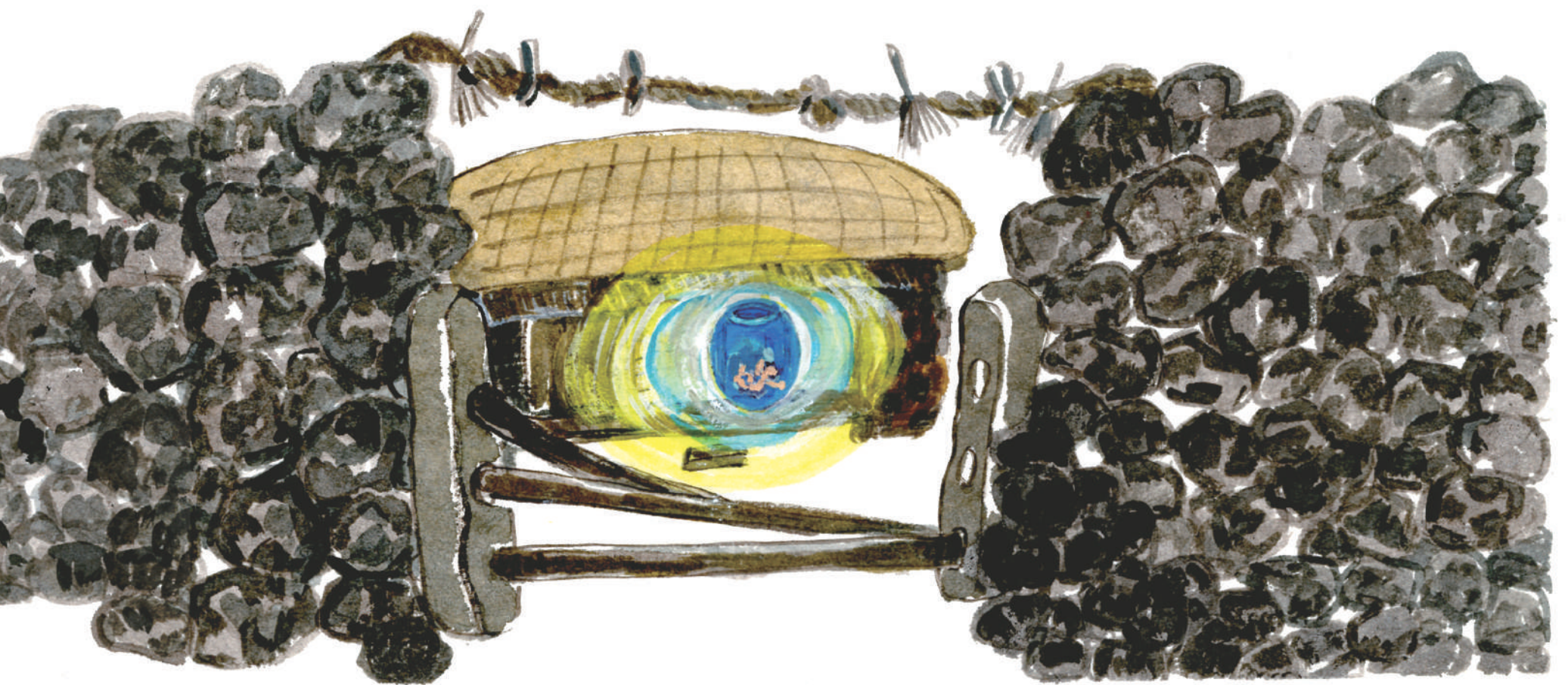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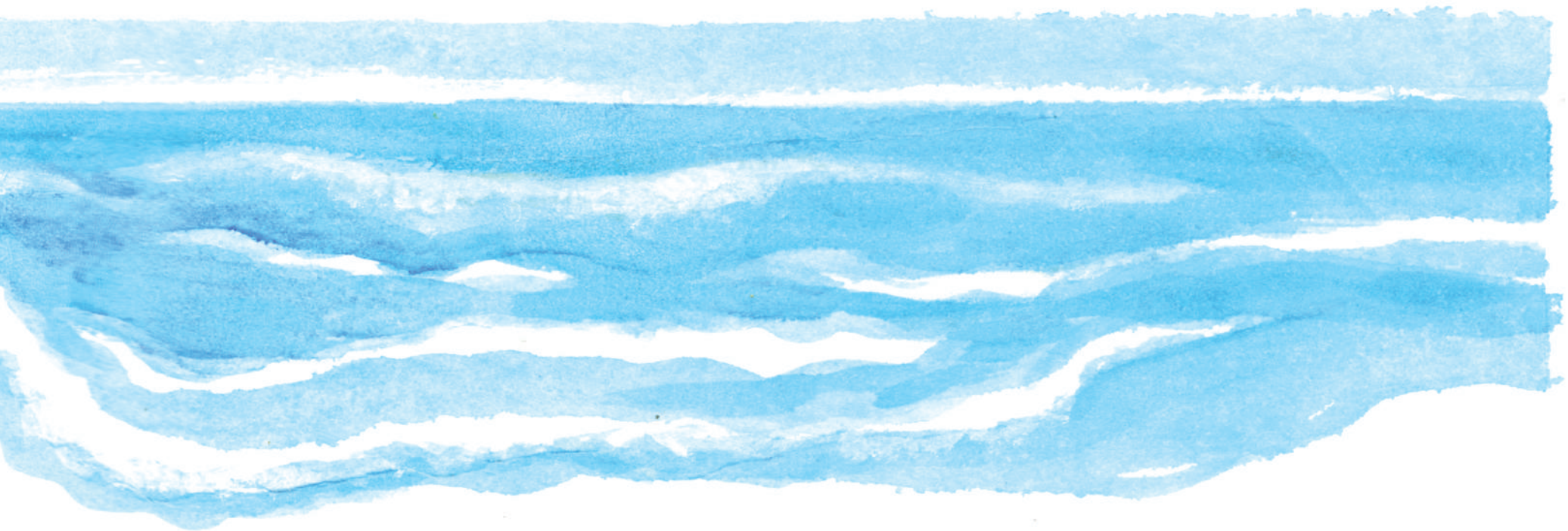






안녕? 나, 만덕이야. 만 가지 덕을 베풀라는 뜻이지.
나는 남쪽에 있는 바람의 섬에서 태어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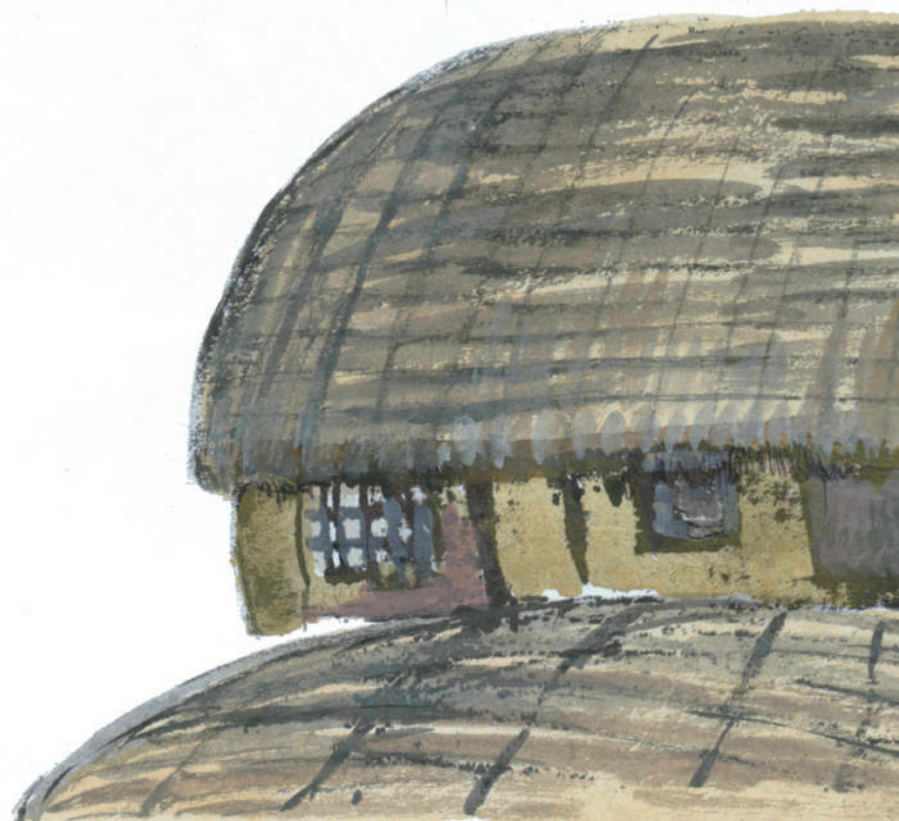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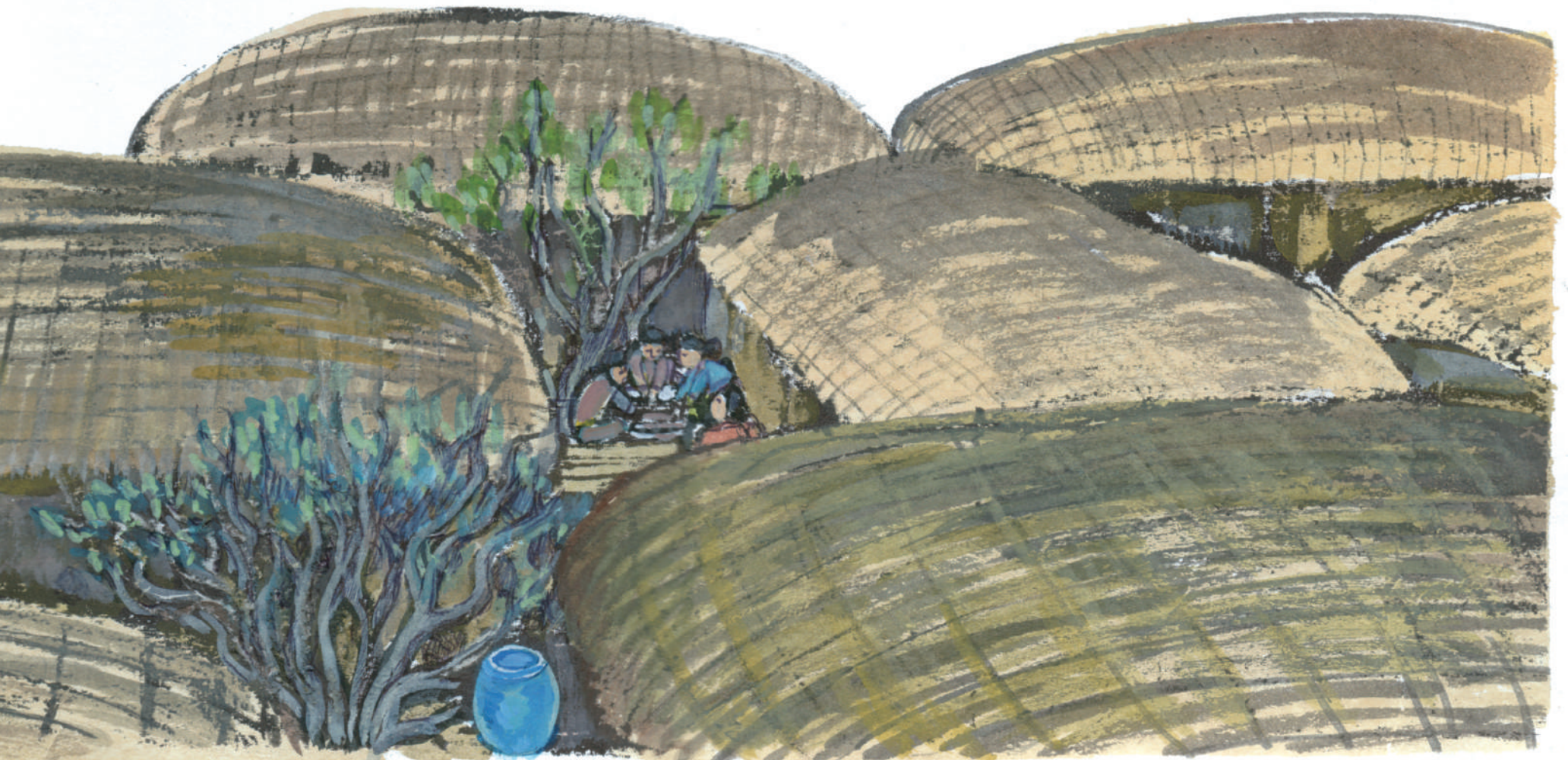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기생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었단다.
그건 바로,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최고의 상인이 되는 것이었어.
나는 원님을 찾아가 간청했어.

"제가 본디 양인의 신분이었으니,
부디 기생이 아닌 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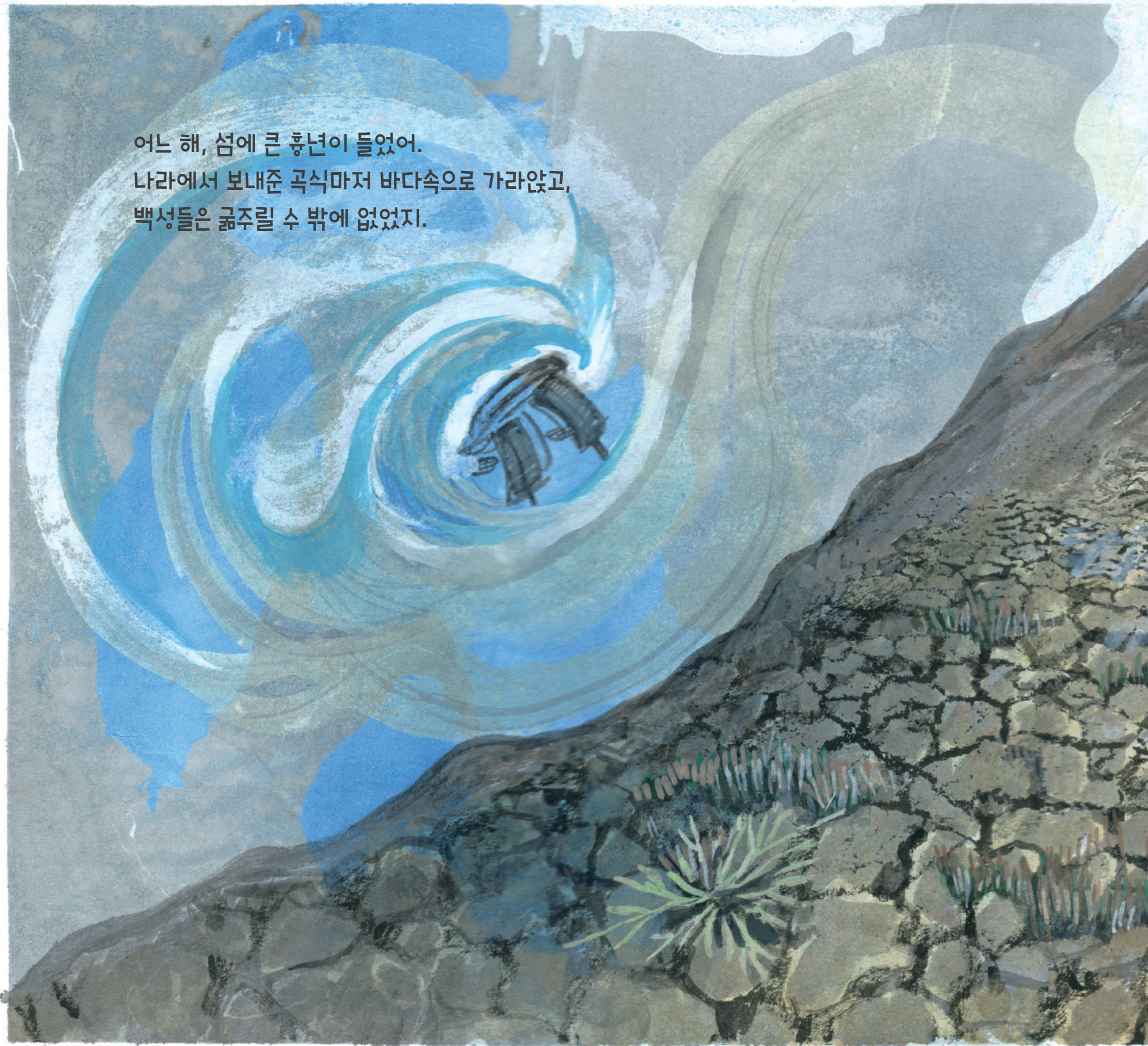




마침내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나는 객주를 차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섬의 물건과 육지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큰돈을 벌었지.
나는 유명한 상인이 되었단다.



어느 해, 섬에 큰 홍년이 들었어.
나라에서 보내준 곡식마저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백성들은 굶주릴 수 밖에 없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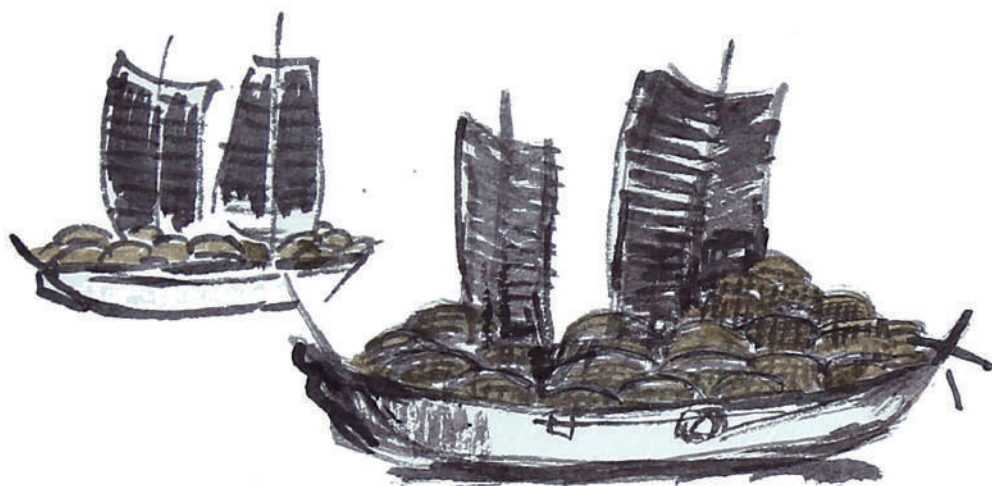






나는 굵주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내가 번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여기 여러분을 위해 곡식을 마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섬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단다.







섬 전체가 내 이야기로 가득해졌고,
그 소문은 한양의 임금님에게도 전해졌어.

"여봐라, 만덕을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해라."

만'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만덕으로 이국을 도망쳐 사랑을 살리네!

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살리네.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바다 건너 한양으로 올라갔어.
밝게 빛나는 북극성과 부드러운 바람이 길을 내주었지.





궁궐에 도착한 나는 임금님을 향해 큰절을 올렸어.
임금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

"네 덕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으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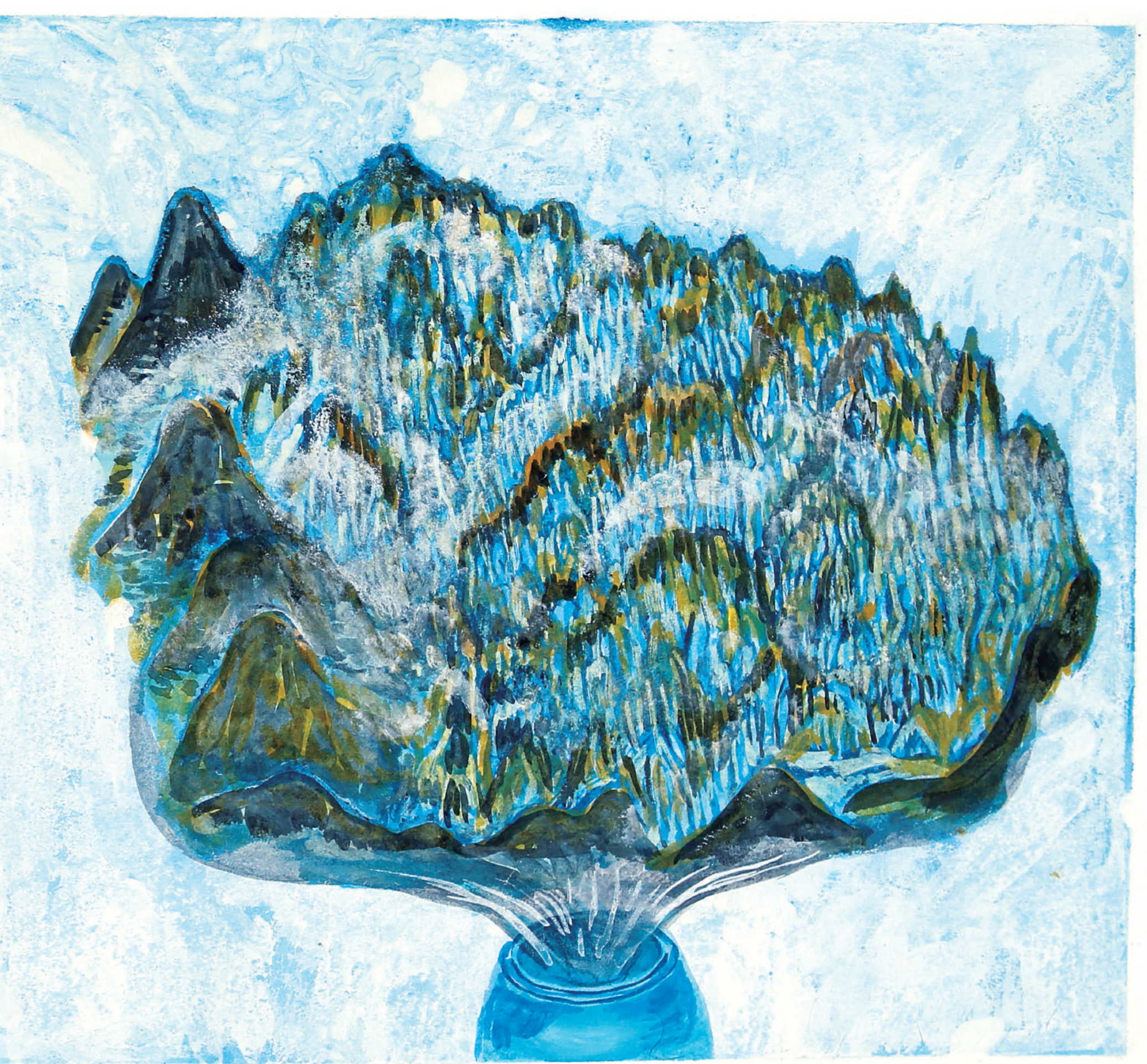




"제 소원은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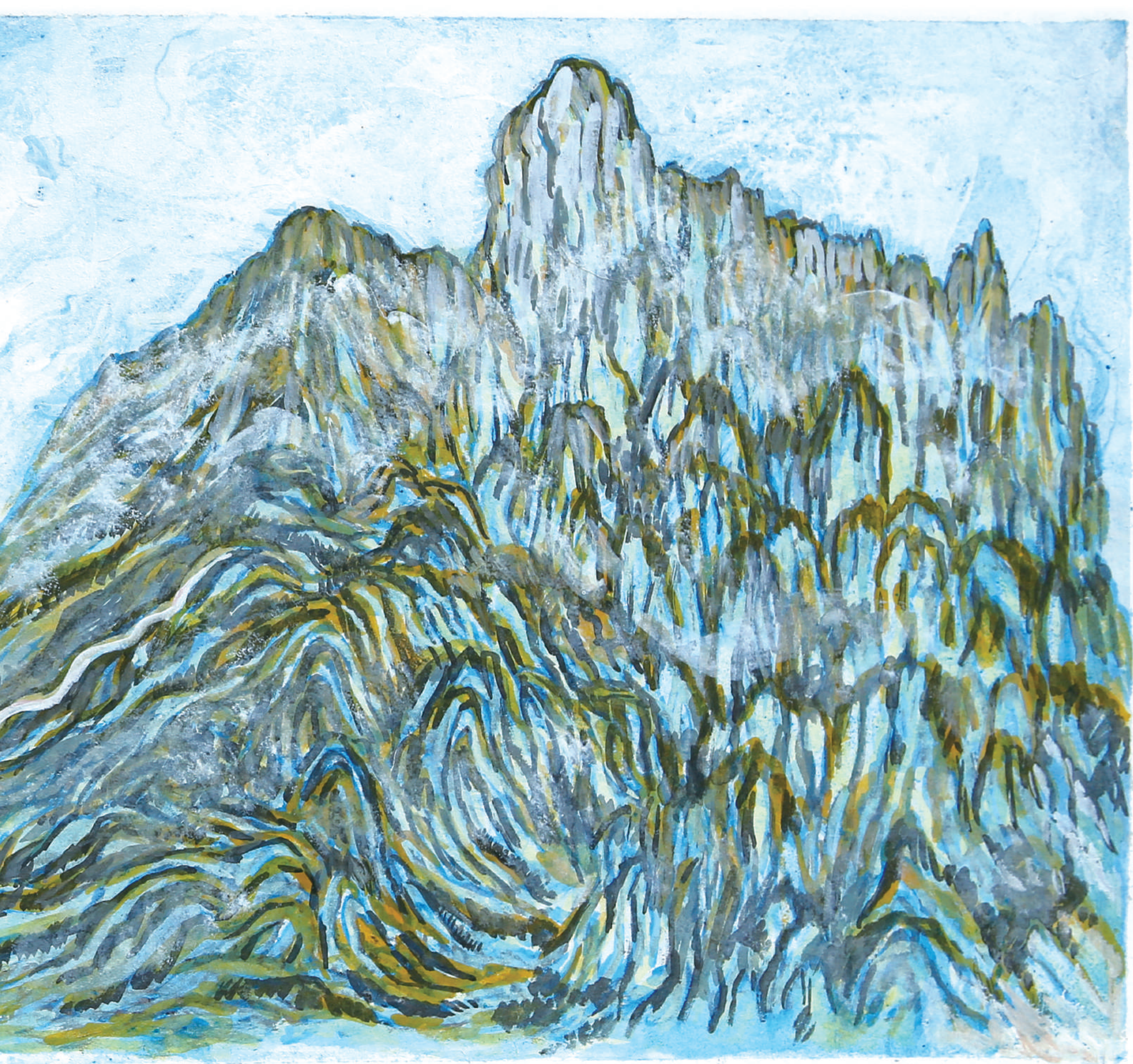
금강산은 내가 평소 꿈에 그리던 곳이었어.

제주 섬에서는 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머나먼 땅에 있었거든.



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어.
금강산 일만이천봉 산봉우리들이
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만덕, 만덕...

...만덕, 만덕...

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눠네.



♪ 만덕, 만덕, 세죽섬에서 금강산까지 당당하게 춤을 이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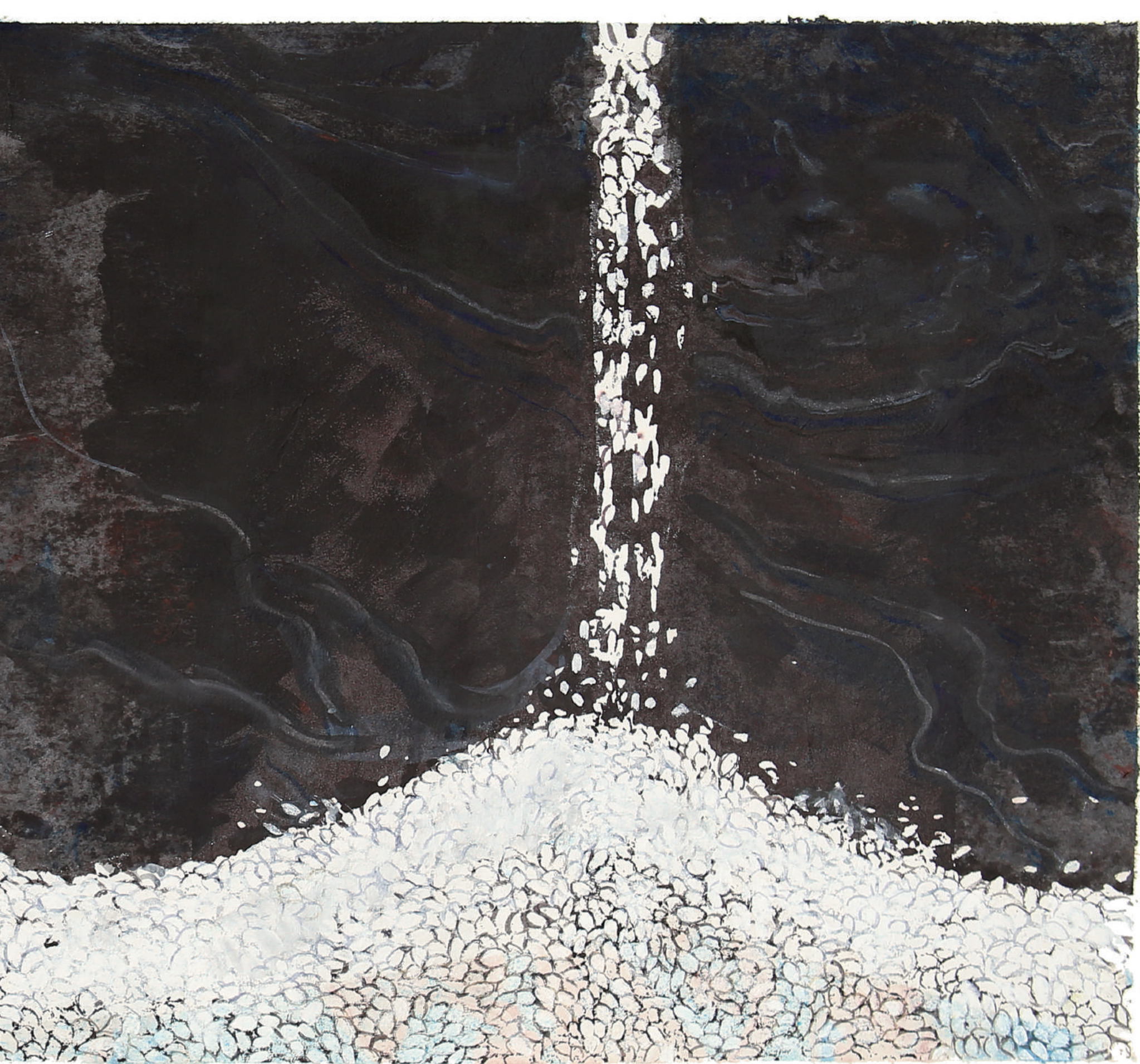
만덕, 만덕, 빛나는 그 이름. 생명을 살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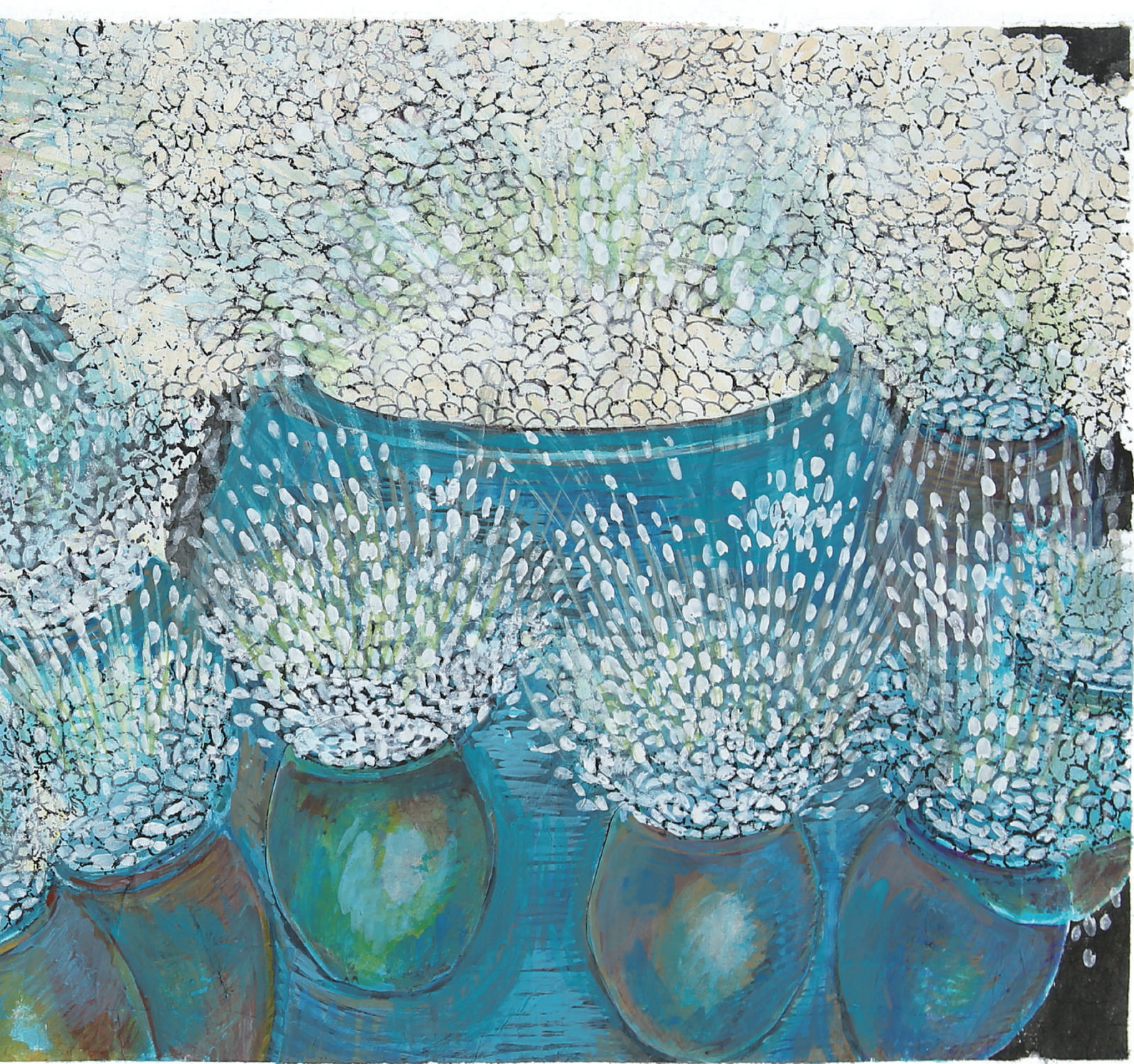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An abstract painting with a dark, textured background. The left side features broad, horizontal brushstrokes in shades of teal, green, and yellow. The right side is dominated by a dense, intricate pattern of small, overlapping, light-colored oval shapes, possibly representing scales or a textured surface. The overall composition is dynamic and layered.

너희들도 해 보지 않을까?
나, 만덕과 함께 말이야.



만덕과 푸른 항아리

Man-duk and the Blue Pot



안녕? 나, 만덕이야. 만 가지 덕을 베풀라는 뜻이지.
남쪽에 있는 바람의 섬에서 태어났어.

Hi. It's me, Man-duk. My name means "to practice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I was born on the island of wind in the south.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기생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건 바로,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최고의 상인이 되는 것이었어.
나는 원님을 찾아가 간청했어.

"제가 본디 양인의 신분이었으니, 부디 기생이 아닌 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After having lost my parents early I became a female entertainer—but I had a dream.
My dream was to recover my original social status as a commoner and to become a great merchant.

I entreated the governor to do me a favor:
"As I was born a commoner, please let me live as a commoner, not a female entertainer."



마침내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나는
객주를 차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섬의 물건과 육지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큰돈을 벌었지.
나는 유명한 상인이 되었단다.

Finally I regained my original position, and started a business by setting up an inn for peddlers.
I made a fortune by trading goods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I became a famous merch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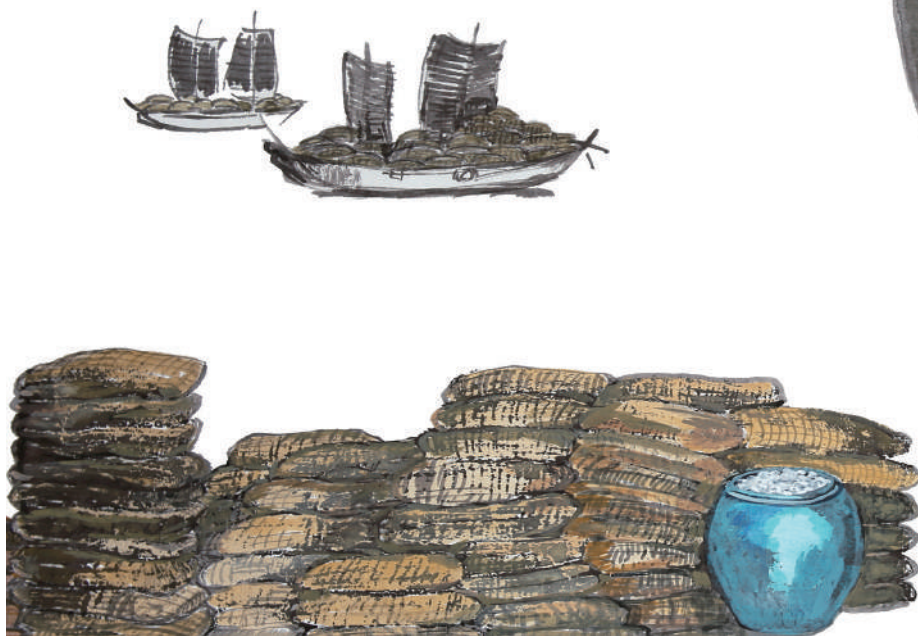
어느 해, 섬에 큰 흉년이 들었어.
나라에서 보내준 곡식마저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백성들은 굶주릴 수 밖에 없었지.

One year, a severe famine struck the isl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ships that contained government aid sank into the sea, leaving
people no choice but to starve.



나는 굶주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I couldn't turn a blind eye to those starving people.



내가 번 돈으로 곡식을 사들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여기 여러분을 위해 곡식을 마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섬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I bought up grains with my money, and called people together:
 "Here I have grains for you; please feel free to take as much as you need."
 Through my efforts, the people on the island could survive the days of hardship.



섬 전체가 내 이야기로 가득해졌고, 그 소문은 한양의 임금님에게도 전해졌어.
 '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람을 살리네.'
 "여봐라, 만덕을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해라."

This story spread throughout the island—even further to the king in Hanyang, the capital:
 'Man-duk, Man-duk, what a beautiful name.
 How she helps neighbors and saves people with her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Listen, call her over to the palace," commanded the king.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바다 건너 한양으로 올라갔어.
밝게 빛나는 북극성과 부드러운 바람이 길을 내주었지.

Upon his invitation, I crossed the sea and went up to the capital.
The bright North Star and gentle breeze guided me there.



궁궐에 도착한 나는 임금님을 향해 큰절을 올렸어.
임금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
"네 덕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으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At the palace I bowed deeply before the king.
He smiled and said, "Since you have saved such a great number of people's lives,
I will grant you one wish. What is your wish?"



"제 소원은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내가 평소 꿈에 그리던 곳이었어.
제주 섬에서는 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머나먼 땅에 있었거든.

"My wish is to tour the Geumgangsan Mountain, Your Majesty."
The mountain was of my long-held yet distant dreams.
It seemed impossibly far away from Jeju Island.



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어.
금강산 일만이천봉 산봉우리들이 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At last my wish came true.
The twelve thousand pinnacles of the mountain gazed upon me and sang songs for me:



만덕, 만덕, 아름다운 그 이름.
만가지 덕으로 이웃을 돕고 사람을 살리네.
만덕, 만덕, 제주섬에서 금강산까지 당당하게 꿈을 이루네.

Man-duk, Man-duk, what a beautiful name.
How she helps neighbors and saves people with her ten thousand kinds of virtue.
Man-duk, Man-duk, from Jeju Island all the way to the Geumgangsan Mountain.
How she proudly made her dreams come 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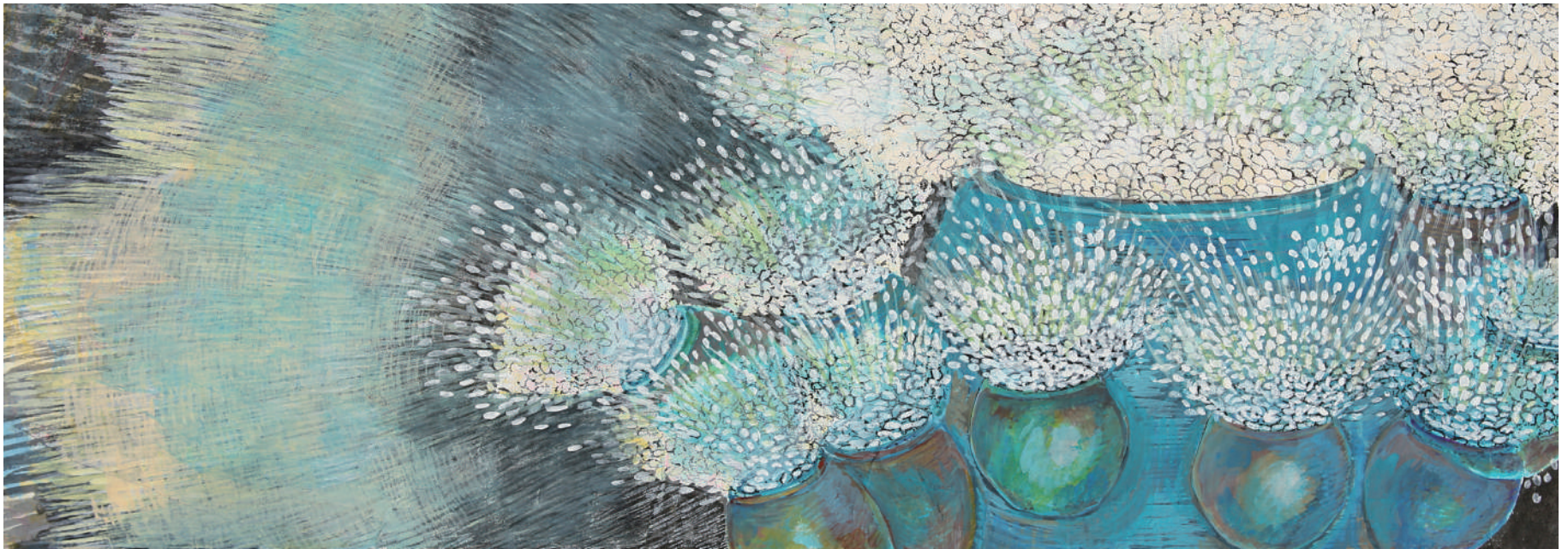
만덕, 만덕, 빛나는 그 이름.
생명을 살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리라.

Man-duk, Man-duk, what a shining name.
Her journey to save lives and live her dreams shall conti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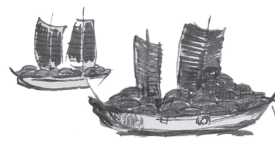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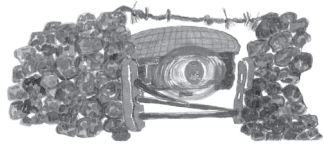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Giving what we have.



너희들도 해 보지 않을까?
나, 만덕과 함께 말이야.

How about giving it a try?
Shall we?



김만덕은 조선시대 영조15년(1739년) 제주도의 가난한 집안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래 양인이었지만 열두살 때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퇴기의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 관기가 되어 천민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한 김만덕은 어렵게 관기의 신분을 청산하고 23살이 되던 해 건입포구에 객주를 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펼쳐 큰돈을 모아 최고의 거상이 된다.

정조16년(1792년)부터 정조19년(1795년)까지 최악의 흉년의 계속되어 정조19년 춘궁기에는 제주도민 수만여 명이 굶어 죽어나갈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마저 풍랑을 만나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김만덕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여 기근에 시달리는 수만 명의 제주도민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당시 임금인 정조는 김만덕을 당시 여성의 벼슬 중 가장 높은 의녀반수로 임명하고 궁궐로 초대했으며, 그녀의 소원대로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다시 제주로 내려와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계속하면서 검소한 생활로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쌀을 주는 등 자선사업에 힘을 쏟아 온 제주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할머니’로 통칭되었다.

김만덕은 “내가 죽거든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주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순조12년인 1812년 10월 22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화북에서 제주성으로 가는 길목인 ‘**구으니무루**’라는 언덕에 묻혔다.

김만덕이 세상을 떠난지 30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이 만덕의 선행을 칭송하자, 당시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는 그의 선행을 기려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라는 편액을 써 3대손인 김종주에게 주었다.



작가의 말

어릴적 김만덕할머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나눔을 준 김만덕의 나이가 되어 사라봉에 있는 모충사 김만덕기념비를 다시 찾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라고 쓰인 묘비앞에 섰다. 제주도 여성으로서, 어릴적부터 무수한 이야기를 들은 그녀를 그림책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제주에는 옹기문화가 있다. 제주옹기는 생활공간에서 곡식이나 장류를 담아두거나 물항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옹기항아리가 이번 그림책에서는 상징적으로 푸른항아리로 등장하게 된다.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옹기는 김만덕의 정신과도 닮았다고 생각된다. 푸른항아리를 그림책의 각 장면마다 넣어보았다.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녀의 묘비를 보며 거룩한 뜻이 다시금 푸른항아리로 되살아나기를 그림책을 그리면서 바래본다.



2017. 여름. 홍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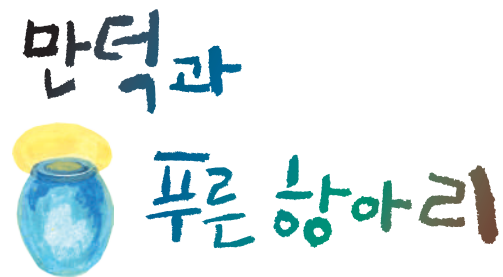
도움을 주신 분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관장님, 객민, 김현주, 김유미, 김만덕기념관 관계자분들, 제주그림책연구회, 신순옥, 강숙경, 임애덕(청수에서원장)외 신성여고 26회 친구들, 현아선, 현승의외 가족들

홍진숙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하였고 1995년부터 2016년까지 14회 개인전을 가졌다. 제주의 신화와 문화, 자연의 모습을 판화, 회화, 그림책으로 작업하고 있다. 현재 오라동에서 홍판화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책으로는 ‘오몽할머니’, ‘어머니자리물회’, ‘작은씨앗’을 쓰고 그렸다.

www.artjs.com



발행인	김만덕기념관장 김상훈
그림·글	홍진숙
기획 및 편집	곽민, 김현주, 김유미
진행	곽민, 김창현, 김유미, 김미영, 양수임, 최고운
번역	정희경
발행처	김만덕기념관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Tel. 064,759,6090 Fax. 064,759,6097

디자인·출판	디자인이야기
등록번호	제 651호 (2008년 6월 27일) 제주시 오복6길 9 T. 064)753-1023

찍은날	2017. 10
펴낸날	2017. 10

